

간호이론개발을 위한 개념 분석 : 어머니됨

김 영 희*

I. 서 론

1. 개념선택 및 개념분석의 목적

실무에서 유용한 실제적인 지식의 경험적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간호이론은 간호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며, 실무자들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간호학문이 발전하기 위하여 이론개발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Chinn & Kramer, 1995).

이론의 기본을 구성하는 개념(concept)은 현상에 대한 심상(mental image)이고 사물과 행동에 대한 마음속의 생각 혹은 구조로서, 지식생성 및 전달의 수단이 되고 학문적 의사소통을 자극하며, 과학적 이론구축의 기본단위로 연구와 이론개발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Walker & Avant, 1983).

하나의 개념이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사용자들간에 의사소통, 즉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높은 상호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개념분석이라는 접근방법이 활용되고 있다(이영애, 1994).

개념 분석은 개념의 속성을 규명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떤 현상이 그 개념의 좋은 예가 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서 간호현장에서 애매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을 정련(refine)하고 모호한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조작적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개념분석을 통한 의사소통을 증가시키며, 간호에 유용한 개념을 찾아냄으로써 이론발전에 기여한다(Walker & Avant, 1983).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주기의 첫째 단계인 가족형성기는 결혼과 더불어 첫아이 출산 때까지로 가족구조, 기능, 역할에 있어서 가족 적응시기이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 시기의 가족내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임신이 여성의 권리이면서 의무라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달리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교육수준 향상, 가치관 변화, 의학의 발달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개인이 상당히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됨(mother to be, motherhood, mothering)이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유안진과 신양재, 1993).

임신의 경험은 여성에게 중요한 경험이며, 임신은 바로 어머니가 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커다란 도전으로서 점차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Barclay, Everitt, Rogan, Schmied, Wyllie 1997), 임신동안 모-태아 애착관계로부터 형성된 모성 정체성은 모성역할획득을 통한 질적인 모-아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전체 삶의 질에 영향

*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간호학 부 모성간호학강사

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임신을 계획하고 임신하는 순간부터 계획된 임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거치며, 임신과 더불어 가족내 역할 변화에 적응하며, 자궁안의 태아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유지한다. 임신기간동안 이미 어머니의 역할을 시작하면서 장차 태어날 아기를 위한 어머니됨의 준비가 필요하며, 건강한 임부-아기를 위한 임신관리 및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습득(knowledge)과 건강행위(health behavior)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이경혜, 박영주, 변수자, 유은광, 이미라, 이영숙, 이해경, 정은순, 조옥순, 최의순, 한혜실, 1997; 최연순, 장순복, 조희숙, 최양자, 장춘자, 박영숙, 이남희, 1994).

특히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밀착된 우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자녀의 성격형성과 자녀의 미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머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문화권에서 임신은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겨져 임신동안 임부는 조용히 기다리고 조심스런 행동과 차분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방매륜, 1983).

또한 현대의 임부들도 임신의 사실을 알게되는 순간부터 자궁안의 생명체에 대한 어머니됨의 준비와 어머니로서의 적응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임신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임부 자신의 건강을 산과의사에게 맡기는 매우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임부들이 어머니됨의 시점을 신생아 출산과 동시에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생아 출생후 모성역할 적응과정에서 역할 부담, 역할 갈등, 우울(postpartum blue),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실제 임상상황(clinical setting)에서는 산전관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임부를 위한 어머니됨의 준비 교육 프로그램인 출산준비교실(Lamaze class)이 극소수 병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교육 프로그램은 감통 출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극히 일부이며, 산과병동이나 산과외래에서의 임부 교실이 현실적으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분만후 산욕병동에서의 산욕기 자가간호를 위한 산모교육시 임신동안의 자가관리 부재와 어머니됨 준비부족요인이 산욕자가관리 및 신생아 양육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한국적 사회문화에서의 임신기

간동안의 어머니됨이 임부에게 주는 개념적 의미를 찾아내어, 개념의 속성을 명확하게 하고 어머니됨의 특성을 탐색하여 어머니의 역할을 준비하는 임부들에게 효율적인 임신적응과 긍정적인 의미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어머니됨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개념 분석 방법

개념 분석방법에는 Wilson의 방법(구미옥, 양영희, 이은남, 박송자, 박영임, 서순림, 김성재, 김인자, 최은옥, 이동숙, 이인숙, 이은옥, 1997에 인용됨), Walker와 Avant(1983)의 방법, Schwartz-Barcott와 Kim(강경아, 1996에 인용됨)의 혼종모델(Hybrid model) 등이 있다. 이중 혼종모델은 이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개념을 확인, 분석, 재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을 현장에서 직접 연구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며, Wilson의 방법 및 Walker와 Avant의 방법은 선행연구가 많이 수행된 개념분석에 더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적용할 개념 분석 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Wilson의 방법 및 Walker와 Avant의 방법을 비교해 보면 대상 개념을 선정한 후 개념의 사용범위를 확인하여 의미를 규명해 내는 과정은 두 방법이 동일하다. 차이점은 Wilson의 방법은 사회적 맥락내에서 개념의 의미를 고려하고 분석의 결과가 유용하고 실용적인지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Walker와 Avant의 방법은 대상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고려하고 개념을 실제 경험세계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Rodgers & Knaf, 1993 cited by 구미옥 등, 1997).

개념분석을 한 기존의 많은 연구(구옥희, 1998; 구미옥 외, 1997; 변영순과 장희정, 1992; 신경림, 1994; 이병숙, 1996; 이경혜, 한영란, 배정미, 정금희 1995; 이영애, 1994; 이옥자, 1993; 조정숙과 최의순, 1995)에서는 Walker와 Avant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Walker와 Avant의 방법은 개념의 선행요인과 결과를 규명함으로써 실제 간호현장에서 구체적인 간호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Walker와 Avant의 방법으로 '어머니됨'의 개념을 분석하고자 한다.

Walker와 Avant(1983)는 개념 분석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이 단계들이 순서적인 것은 아니며,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하였다.

- 1) 개념을 선정한다.
- 2) 분석 목적을 설정한다.
- 3) 개념의 사용 범위를 확인한다.
- 4) 개념의 속성을 규명한다.
- 5) 개념의 모델사례를 구성한다.
- 6) 경계사례, 반대사례, 관련사례, 창안사례를 구성한다.
- 7) 개념에 대한 선행 요인과 결과를 확인한다.
- 8) 경험적 준거를 확인한다.

II. 본 론

1. 개념선택 및 개념분석 목적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건강행위는 개별사회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가 특별히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임신·분만 및 산욕 관리와 관련된 전통적인 건강관리방법의 현대적 조명을 통한 대상자의 건강증진 도모의 노력은 간호영역에서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장순복 등, 1996).

어머니됨의 과정은 실제로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예비 부모로서의 기능 상태는 산후의 기능 상태, 결혼생활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김혜원과 홍경자, 1996).

따라서 태교, 모성 전환, 모성 정체성, 모성 역할획득, 모아 애착, 모아 상호작용의 개념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머니됨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간호영역에서 사용자들간의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머니됨의 개념분석을 시도하였다.

2. 개념의 사용 범위

1) 사전어를 통하여 본 어머니됨의 개념

‘어머니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mother)’와 ‘됨(to be)’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대부분의 사전에는 어머니됨이라는 단어가 실려있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됨은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어머니와 모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머니’는 자기를 낳은 여성, 아들이나 딸을 가진 여자, 사랑으로써 뒷바라지하고 걱정해 주는 존재를 비유하는 말, 무엇이 생겨난 근본을 비유하는 말로 정의된다(이희승, 1982; 한글학회, 1994).

‘mother’의 뜻은 자녀를 가진 여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진 어떤 이, 어머니와 같은 권위와 위엄을 가진 이, 무엇인가를 양육하고 만드는 이, 모성의 특성이나 모성으로부터 받은 애정과 같은 느낌이며, ‘mothering’의 의미로는 자녀 출산 및 어머니로서 애정으로 돌보고 보호해 주는 것, 모성의 속성을 갖는 것, 어머니가 되는 것 혹은 어머니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크게 3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maternity’의 뜻은 어머니가 되는 상태나 질로서 motherhood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어머니로서의 임무와 어머니의 특성이나 질을 포함하는 개념이며(Webster 영영 사전, 1976),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애정과 사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계몽사 여성백과 효토피아, 1996).

사전적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됨(mother to be, motherhood, mothering)이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갖는 특징, 임무, 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2) 문헌을 통하여 본 어머니됨의 개념

‘어머니됨’의 개념은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부모됨’, ‘부모전환’, ‘모성전환’, ‘모성정체성’, ‘모성 역할획득’, ‘모아 애착형성’, ‘모아 상호작용’, ‘태교’와 같은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들을 함께 고려 해 봄으로써 ‘어머니됨’의 의미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의 여성들은 가정의 천사라는 이미지에 기반한 모성 이데올로기와 전업주부상이 강화되어 여성의 가정적·사회적 책임을 규정하여 가정은 여성에게 도덕성을 구현하는 장이며, 모성과 여성적 덕은 가부장적 권위와 종교적 교리를 대신해 자녀양육의 책임을 도맡게 되었고 ‘도덕적 어머니’상은 여성의 순결, 가정성, 인내 등으로 연결되었다. 19세기말에 오면서 모성애(motherhood)가 더욱 강조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여성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어머니로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가장 깊은 절망을 주기도 했다. 여성들에게 가족생활의 핵심은 어머니의 의무였으므로, 이런 의무감이 여성을 가족 안에 고립시켰고, 남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하게 하였고, 어머니가 되는 일은 국가 모보수 간호사와 같은 것이었다. 20세기 초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경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보다 많은 여가와 개인적 생활을 요구하게 되었고, 성별분업도 덜 엄격해졌고, 가정의 신성화를 둘러싼 내적 모순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가족생활양식이 변화하게 되어 개인적 만족을 중시하는 가족이 출현하게 되었다(이정옥, 조은, 주주현, 1997).

여성의 어머니되기는 그 자체의 재생산 능력을 포함하며, 여성에게 어머니로서 적절한 심리적 자아개념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 구식의 모성의 정의들은 모성을 하나의 지위로 간주하였다. 어머니 역할 자체가 여성과 동일시되었고, 여성들이 행한 모든 것이 모성의 용어로 이해되거나 모성애에 대한 잠재력 속에서 비춰졌다. 그러나 새로운 모성의 언어는 양육과 보살핌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관계와 그 구성을 받아들이고 존경하게 됨을 남녀 모두 넓게 공유하고(박숙자, 손은영, 조명덕, 조은, 1995), 새 생명과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 생명유지에 대한 배려와 책임, 삶에 대한 사랑, 존재의 기쁨을 가르쳐주는 태도로써의 모성애를 말한다(서병숙, 1993).

가족의 인생주기에 있어 임신은 여성 자신에게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여 개인의 발달과 성숙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태아에게는 모체의 선천적인 환경으로 작용하여 출생후 자녀의 성장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임신한 여성은 임신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머니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처음 어머니가 되는 과정은 여성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발달과 함께 자녀의 일생에 있어서 초기 어머니 역할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 전환과정(transition to parenthood)에 있어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모성간호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간호 연구 주제가 된다(김혜원, 1996).

임신초기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의 교차는 정상적인 반응이며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주위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임신중기에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되고 임신에 대해 만족감 느끼며,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상당부분 이루어진다. 태동을 느끼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이때부터는 임신을 원했던지 원하지 않았던지 태아를 받아들인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변화로 태아에게 더욱 애착과 사랑을 느낀다. 배우자와 함께 많은 관심을 갖고 편안함과 행복감을 경험하면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임신말기에는 신체적 불편증상들 때문에 힘들어진다. 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다소 불안해지며, 분만과 진통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 엄마의 새로운 역할을 재조직하고 재적용하는데 잠재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아기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역할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출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심미정,

1994; 최연순, 장순복, 조희숙, 최양자, 장춘자, 박영숙, 이남희, 1994; 이은희, 1995; 조주연과 이미라, 1996; 이경혜 등, 1997; Sandelowski & Black, 1994).

Rich는 어머니됨(motherhood)을 두가지 의미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자녀를 갖은 여성의 강력한 관계이며, 둘째는 모든 여성들이 남성의 지배하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가부장적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적인 의미라고 하였다(Rogan 등, 1997에 인용됨).

Walker(1992)는 임신을 통해 부모가 되는 과정은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과정이라 하였다.

Reeder와 Martin(1987)은 어머니됨이 인간생활의 한 부분이며, 생명에 경의심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Barclay, Everitt, Rogan, Schmied, Wyllie(1997)은 새로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현실인지, 준비되지 않음, 지침, 상실, 외로움, 애써 성취함의 과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방매륜(1983)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있어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문영숙(1998)에 의하면 어머니됨은 여자다움의 궁극적인 증거이며 여성으로서의 성인생활에 핵심이 되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재이유가 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은희(1995)는 임신을 통해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모성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하였다.

부모됨이란 실제로 부모가 되기 전에 심리적인 동기로 작용하며, 부모됨의 동기는 본능이 아니라 획득이다(Bigner, 1985). 따라서 개인의 내부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됨의 동기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Rabin(1965)은 부모됨의 동기를 종교적 의무나 가문계승을 위하여, 자녀를 위한 헌신과 애정을 베풀기 위하여, 성인으로서의 성숙과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자녀를 통해 제 2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Veevers(1973)는 문헌고찰을 통해 부모됨의 사회적 의미를 도덕적 차원(morality), 책임성 차원(responsibility), 자연성 차원(naturalness), 성 차원(sex), 결혼 차원(marriage), 정신건강 차원(mental health)의 6개 범주로 밝혔다. Callen 과 Gallois(1983), Fawcett(1988)은 자녀를 갖는 가치로서 애정교류, 성취감 등의 심리적 측면, 노동력 확보와 노후안정지원의 경제적 측면, 결혼이나 가족의 완성의 사회적 단위로서의 지위측면, 세대간 결합측면, 성인지위로의 영입측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부모됨에 대한 태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Secombe, 1991).

유안진과 신양재(1993)는 부모됨의 동기를 5개의 요인, 즉 부모됨으로 성인 정체감이나 부부가족으로서의 지위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위요인,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달성을 연장,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연장요인, 자녀출산, 성장을 통하여 창조와 성취감을 갖고자 하는 창조성취감요인, 집안이나 사회의 존속, 계승을 위한 전통성요인, 자녀를 통하여 혈연간의 애정과 유대감을 갖고자 하는 일차적 집단결속감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부모 전환으로 볼 때 Goldberg(이은희, 1995에 인용됨)는 부모 전환을 임신의 시작으로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였으며, Imele(1990)은 임신을 부모기로의 역할 전환기 또는 역할 전환에 대한 준비기로 보았으며, Rossi(1968)는 부모 전환기를 역할주기 4단계인 예비기(anticipatory stage), 밀월기(honeymoon stage), 정체기(plateau stage), 종료기(disengagement-termination stage)로 구분하여, 어머니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임신기간을 모성역할의 예비기로 보았다.

부모 전환기(transition to parenthood)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오랜 유래를 가지고 그 문화속에서의 사회화 과정에 대하여 연구 되어져왔다. Le Masters(1957)는 부모전환기를 '위기'의 관점으로 보았고, Rossi(1968)와 Hoffman & Manis(1979)는 성숙과 발달에 초점을 둔 중립적 관점에서 부모전환기를 연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전환기를 중심으로 역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역할은 어떤 특정한 위치와 관련된 문화적인 총체이며, 이러한 역할개념은 크게 '구조-기능적 역할이론'과 '상징적 상호작용적 역할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양명숙, 1994).

구조-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첫 자녀 출산이후 가족 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중심으로 부부간의 강한 역할 분담 성향을 나타내는데, 어머니 역할수행은 보존, 성장, 수용 가능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세가지 관점에 의해 지배된다. 일반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 때문에 보존은 임신을 인지하고 수용할 때 시작되며 자녀의 생명보존, 자녀성장 촉진, 수용 가능한 자녀로 키우려는 관심과 배려 깊은 사랑의 능력을 내포한다(권오주, 김선영, 노영주, 이승미, 이진숙, 1991).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상징적 연결

자이며 유일하게 상징적 의미를 사용하는 생명체이며, 또한 사회집단 속에서 상징적 과정에 종속되고 관찰되는 유일한 개체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물'을 기본적인 그 자체보다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해석에 따라서 그 '사물'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됨' 또는 '자녀를 가지는 것'과 같은 의미들은 상징적인 것을 전달하는데, 이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된다는 일반적인 상징이 내포되어 있다. 과정은 다른 타인들에 의하여 그 위치에 상응되도록 요구되어지는 기대에 따라서 형성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역할이다. 따라서 '부모됨'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적인 관점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부부의 역할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로 변화되는 역할정체감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상적인 여성이 경험하는 어머니됨은 어머니가 되는 현상과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획득으로 크게 구분한다. 모성정체성은 추상적인 반면에 모성 역할획득은 비교적 실제적이다(김혜원, 1996). 모성정체성에는 어머니 이미지각, 심상적 어머니역할, 모-태아 상호작용, 긍정적 정서반응(행복감), 부정적 정서반응의 다섯가지 하위개념이 포함되며, 모성정체감이 완전히 성숙해지면 어머니는 스스로 어머니임을 인정하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김혜원과 홍경자, 1996).

이은희(1995)는 초산부부의 임신경험을 통하여 어머니됨의 개념을 모성전환 즉 모성정체성과 모-태아 애착, 임신적응의 세가지 범주로 개념화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훌륭한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대대로 가문을 이어가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해 왔으며, 좋은 자손을 출산하기 위한 여러 결혼관행을 발달시켜왔고 더불어 임신 후에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정서적인 충고와 지지 및 음식을 금하는 것에 대한 충고와 지지를 함으로써 임신동안 가족 내에서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어머니됨을 준비하여 왔으며, 건강하고 훌륭한 자손을 낳기 위한 방법으로써 태교를 엄격히 실천하였다(김현옥, 1996; 방매륜, 1983).

태교란 '임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 마음, 감정 등을 정화시키는 일'로 정의할 수 있으며(김현옥, 1995, 1996; 이희승, 1982; 최연순, 1995; 한글학회, 1994), 태교의 목적은 부모가 될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아기의 출생까지 심신이 건강한 태아의 수태와 태내발달 및 출생을 위하여, 또 모체의 안정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시행하였다(최연순과 김현옥,

1995).

태중훈문(胎中訓文)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헌중 태교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고려 말기에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지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훌륭한 인물을 낳기 위해서는 성현의 지난간 행적을 더듬고, 그에 관한 책을 읽고, 이를 항상 부러워하며, 성현과 같은 위인을 낳았으면 하고 마음으로부터 보통 사람이 실천하기 힘든 행동을 해야한다고 기록되어있다(정난주, 1994).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조선 영조시대 어의로 있던 허준이 임금의 명을 받고 집대성한 의학서적으로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임신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상세히 적혀있고 개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도 기록되어있어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임신동안 얼마나 세심한 주의와 바른 생활태도로 아기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박인규와 박영규, 1991).

태교신기(胎敎神記)는 세계 최초의 태교 단행본으로 사주당 이씨가 국내의 문헌을 참고로하여 자신의 임신 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서술했으며, 단지 부인들만을 위한 글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지켜야 할 태교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임신부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아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임신 중에 모성이 어떤 몸가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인물을 낳을 수 있으므로 임신중 권장하거나 금해야 할 마음가짐 및 음식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이경혜 외, 1997 ; 서병숙, 1993 ; 주정일, 1993).

규합총서(閩閩叢書)는 병허각 이씨가 쓴 여성용 백과사전으로 권지사(卷之四) 청낭결(靑囊訣)에서 태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내용은 태교신기, 동의보감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내훈(內訓)은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소혜왕후)가 궁중의 비빈과 부녀자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성종 6년(1475년)에 펴낸 책으로 태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문왕의 어머니 태임과 무왕의 어머니 태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임신기간중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난주, 1994).

현대에 이르러 이규태가 쓴 한국서민사(韓國庶民史)에는 남도지방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삼태도(三胎道)와 칠태도(七胎道)란 민간 태교가 소개되어 있으며, 이동민(1989)과 임동근(1993), 심미정(1994), 모국어 연구회(1995)는 구체적인 태교 실천내용을 제시하면서 태교 확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통태교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그 실천양상이 변

화해 왔고, 현대 여성이 실천하는 태교는 행동이나 음식물 섭취 등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인 태교와 차이가 있다(김현옥, 1996 ; 장순복, 박영주, 최연순, 정재원, 1996 ; 조동숙, 1987 ; 최연순, 김현옥, 1995).

현대 사회에 있어서 태교는 임신부가 태중 아기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주의사항을 수동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임신 이전의 준비시기까지를 포함하며, 모든 가족의 보다 적극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교육적 노력이며, 심리적 요소 이상의 성격이나 인격발달, 인지발달, 감성발달, 안전도모 및 생물학적 조절의 차원까지를 내포하는 총체적·포괄적 건강추구행위이다(김순이와 류철선, 1997 ; 유안진, 1992 ; 이동민, 1989 ; 장순복 등 1996).

조동숙(1987)은 전통적인 산속적 태교와 현대적인 산전관리적 태교를 구분하였으며, 최연순과 김현옥(1995)은 35주이후의 임부와 출산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신중 실천하였던 태교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장순복 등(1996)은 동양민속행위적인 임부의 자가관리 측면에서 한국여성들의 태교요인을 태아심성 안정, 태아 인성발달, 태아 지성발달, 태아와의 교감, 태아의 신체적 건강요인으로 확인하였으며, 김현옥(1996)은 문화-생물학적 체험으로써 출산에 관한 임신부부의 태교 경험을 임신전 태교, 임신시 태교, 임신중 태교로 구분하였으며, 김순이와 류철선(1997)은 임신부의 태교에 대한 태도유형을 정서안정형, 자기조절형, 의존지향형으로 분류하였다.

태교는 그동안 서양의학중심의 산전관리방식에 밀려 전문건강관리체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 민간 건강관리체계에서는 임신관리를 위한 실천지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신중 태아가 받은 자극은 어떠한 형태로든 출생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많은 임신부들은 태교의 효과를 믿으며 신념을 갖고 태교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임신동안 어머니가 되어가는 준비과정으로서 태교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됨의 개념적 의미 속성

이상의 개념의 사용범위 확인을 통하여 규명된 어머니됨의 개념적 의미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어머니됨의 속성은 자연성(naturalness)이다. 이 속성은 가족형성기에 있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아내라는 부부중심의 역할에서 '어머니'의 역할로 변화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머니로서 특성을 의미한다(문영숙, 1998; Barclay 등, 1997; Veevers, 1973).

두번째 어머니됨의 속성은 책임성(responsibility)이다. 책임성이란 어머니라는 개념이 갖고있는 전통적인 속성으로서 가족내 역할의무인 종족보존의 의무가 가져오는 가정적·사회적 책임과 자녀양육 및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박숙자 등 1995; 방매륜, 1983; 서병숙, 1993; 유안진과 신양재, 1993; 조은 등, 1997; Callen & Gallois, 1983; Rabin, 1965; Rogan 등, 1997; Veevers, 1973).

세 번째 어머니됨의 속성은 애착성(attachment)이다. 이 속성은 임신 전기간동안 모성과 태아사이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동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습득되는 심리적 결속을 의미한다(권미경, 1996; 김혜원, 1996; 유안진과 신양재, 1993; 이은숙, 1992; 장순복 등, 1996; 모국어교육연구회, 1995; Callen & Gallois, 1983; Fawcett, 1988).

네 번째 어머니됨의 속성은 준비성(readiness)이다. 이 속성은 부모전환과정중 모성역할의 예비기인 임신기간동안 어머니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역할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태교를 통해 훌륭한 자녀의 출생을 준비함을 내포한다(김현옥, 1996; 박인규와 박영규, 1991; 방매륜, 1983; 이경혜 등, 1997; 장순복 등, 1996; 정난주, 1994; 최연순과 김현옥, 1995; Hoffman & Manis, 1979; Imele, 1990; Rossi, 1968).

다섯 번째 어머니됨의 속성은 제어성(controllability)이다. 이 속성은 임신의 생리적·심리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불편감 및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전환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인규와 박영규, 1991; 심미정, 1994; 정난주, 1994; 주정일, 1993; Callen & Gallois, 1983).

4. 모델사례

어머니됨 개념사용의 실제 생활의 좋은 예가 되는데 그 개념의 모든 중요한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개념의 속성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사례로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의 필수적인 양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Walker & Avant, 1983).

26세된 임신 34주의 초임부 사례.

“남편과 상의했을때는 결혼 1년후 임신하기로 계획했으나 피임실패(콘돔)로 임신이 되었어요. 임신하기 전에는 임신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는 어차피 아기가 생겼고 유산을 시킬수도 없으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제어성).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는 내가 정말 언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자연성) 메시에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만 잘 해주면 되었지만 요즘은 언마티기 정말 힘들거 같아요. 가족이 들고 책임이 뒤따르는 일인 것 같아요(책임성).

제가 언마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주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신10달이 확실히 아기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든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몹이 무거워지니 힘이 들기도해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도 힘들고, 활동이 불편해지는데, 그래도 아기에겐 최대한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지요. 임신한 후 커퍼는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룰라 같은거 마셔도 “이러면 안되는데, 아기아 먹어야다”하고 조금 마시는 정도예요. 맥주 같은 거도 태반을 통과하여 곧바로 아기에게 전해진다고 하여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담배를 때 배산다에 나가서 피우는데 아기 낳으면 담배 끊겠다고 하는데 생각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준비성).

혼자있을때는 소리내어 얘기를 해주지요. 비행기 소리가 나면 “아기야 지금 소리 들리니? 이 소리가 비행기 소리아”하면 아기가 바로 먹습니다(애착성).”

5. 추가사례

1) 경계사례

경계사례는 개념의 중요한 속성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개념속성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개념사용의 실 예인데(Walker & Avant, 1983), 이 예를 통해서 왜 모델사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 개념의 중요한 속성을 보여준다.

27세된 임신 26주된 초임부 사례.

“정말 어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자연

성) 어께가 무거워집니다.

벅속에 아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기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거죠(책임성).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 까지 잉거수잉투족 신경 쓰며 조심하면서 출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준비성). 그러다 보면 '정말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원래 제 성격이 완벽, 비판주의 적이거든요.

입덧이 심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맥주를 마셔보라고 하셔서 조금씩 마셨더니 한결 좋아졌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가야하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신경질이 날 때가 많아요(제어성 결여).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임신기간동안 그런 아기로 키우는 거겠지요. 언니들이 키우기 쉬운 아기를 낳기 위한 언니들의 이기적인 마음도 포함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살림이 힘들어서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결혼하면서 바로 임신이 되어 설거지는 남편이 해주고 반찬은 양가 어머니께서 준비해주시면 가져다 먹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께서 잉거수잉에 한 번씩 오셔서 집안청소며 힘든 집안일을 해주세요. 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시거든요."

이 사례는 어머니됨의 자연성, 준비성, 책임성의 속성은 볼 수 있지만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감으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며, 애착성의 속성에 있어서도 태아와의 긴밀한 교류보다는 자신의 대리만족을 위한 2세의 출산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경제 사례에 해당된다.

2) 반대사례

반대사례는 정의된 속성과 반대되고, 그 개념이 분명히 아닌 것을 나타내는 사례이다(Walker & Avant, 1983). 우리는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반대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반대설명이 더욱 이해를 쉽게 하기 때문이다.

26세된 미혼직장여성으로서 초임부 사례

매사에 자신감있고 끈끈한 성격을 지닌 26세 은행원인 유양은 고등학교 졸업후 죽골 은행에 다니면서 전문대학 경영학과 졸업하고 용해 대학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대학 야간학부 3학년에 재학중이다. 작년 직장 연수모임에서 알게된 이씨와 교제 중에 계획

치 않은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유양은 이씨와 내년 가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중 뜻하지 않은 임신 진단에 놀라(자연성 거부) 가족과 상의를 하였다. 유양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가는데 임신한 아기가 걸린통이 된다고 생각하여(애착성이 없음) 소파수술 받기를 원하였고(책임성 결여), 파트너인 이씨는 그대로 아기 낳기를 종용하였으며, 유양의 어머니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간호사 김씨에게 임신 7주된 땃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였다. 간호사 김씨는 소파수술에 대한 강담전을 충분히 설명한 후 유양이 파트너 이씨와 충분히 상의하여 의사결정 내리도록 권하였다. 유양은 1주일을 고명한 끝에 두언니의 적극적 권유로 용해 가을에 결혼을 앞당기고 그대로 아기를 낳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업무라다, 입덧으로 유양은 1달사이에 체중이 2kg나 감소되었고(준비성 부족), 직장에서 임신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스러워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만 내었다(제어성 부족).

3) 관련사례

관련사례는 분석하는 개념과 아주 유사하지만 자세히 검토하면 차이가 있는 관련되는 개념에 대한 사례이다 (Walker & Avant, 1983).

39세된 임신 22주의 전문직 초임부 사례.

39세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씨는 결혼 11년간 임신되지 않아 복인클리닉에서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임신하였다. 임씨는 바쁜 직장생활중에서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병원에 방문하여 산과 의사로부터 자신과 아기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양심을 한다. 퇴근 후 임씨는 자신이 직장에서 하루종일 힘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녁식사후엔 늘상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 임씨가 누워있으면 임씨 남편은 벅속의 아기를 위해 음악을 들려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이씨의 배를 어루만지며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손으로 직접 느끼면서 아기와의 정나누기를 한다(아버지됨).

위의 사례는 임부는 자신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위해 건강추구행위를 실천하는 반면에 임부의 배우자가 경험하는 아버지됨(fatherhood)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4) 창안사례

창안사례는 개념의 속성이 모두 포함되나 우리의 경험바깥의 세계에서 사례를 구축한 것이다(Walker & Avant, 1983).

26세된 권씨는 결혼후 좋은 건강한 생명을 갖기 위하여 남편과 함께 낚니다 기도생활로 마음을 준비하던 중 결혼 6개월만에 임신을 확인하였다. 임신 진단 후 권씨 부부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며(자연성), 임신을 확인한 날부터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한 육아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책임성). 일기를 쓰다 보니 아기가 많은 태아를 나누면서 아기가 정말 소중한게 느껴졌고, 태동감을 느낄때면 아기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더해졌으며, 어느때 아기가 기뻐하고 어느때 아기가 힘들어하는지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애착성). 권씨는 임신 24주가 되자 남편과 함께 집 가까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식사하는 출산준비교실에 등록하여 2개월동안 주말마다 건강한 임신관리 및 각종 출산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고, 평상시 시간이 날 때마다 나그즈 호흡과 이완술을 연습하며, 출산 후 모유를 수유하기 위한 준비로 매일 샤워시마다 유두를 십자모양으로 돌출시키고 타월로 유두를 훈련시키고 있다(준비성). 34주가 되면서는 배가 점점 볼거져 변비가 생겨서 아침마다 찬 우유를 한 컵씩 마시고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갔으며, 심신할 때마다 오이, 당근과 같은 야채와 과일을 수시로 먹었더니 변보기가 한결 편안해졌다(제어성).

6. 선행 요인과 결과

선행요인은 개념의 발생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하며, 결과는 그 개념의 결과로 발생한 일이나 사건을 의미한다.(Walker & Avant, 1983). 이 두단계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에서 고려할만한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개념의 중요한 속성을 한층 더 정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성에는 여성으로서 갖는 친부적인 이타주의적 사랑의 표현으로 어머니됨의 과정에서 중요한 선행요인이 된다(이희승, 1982 ; 조은 등, 1997 ; 한글학회, 1994).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의 일차적인 사회적 기대이며, 여성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존감이 어머니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여성의 자아강도, 자신감이 어머니로서의 능력의 기본적인 결정인자가 된다

(Kemp & Page, 1987).

여성에게 있어서 어머니로서 적절한 자아개념과 능력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게 하며 자존감이 어머니 역할 획득에 주요한 인자가 된다(서병숙, 1993 ; 이은희, 1995 ; , Gordeuk, 1976). Rubin(1961, 1971)과 Curry (1987)는 모성행위가 어머니 개인의 자존감에 따라 좌우되며, 임신초기의 모-태아 애착과정은 임부의 자존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임신초기에는 임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임부와 업을 완수하며, 임신중기에는 태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며, 바람직한 어머니됨의 과정이 진행된다(김혜원과 홍경자, 1996 ; 심미정, 1994 ; 이경혜 등, 1997 ; 조주연과 이미라, 1996 ; 최연순 등, 1994).

Leifer(Muller, 1992b에 인용됨)와 Carolyn와 Geri (1989)는 태동감을 통해 태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모성과 태아와의 정서적인 유대가 강화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어머니됨의 선행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모성에
- (2) 긍정적인 자존감
- (3) 임신 수용
- (4) 태아인지

Rubin(1967)은 어머니 역할 획득을 어머니로서 정체감 확립으로 보았는데,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은 어머니가 과거와 현재의 자기자신을 아는 감각이며 연속적인 생의 단계에서 새로운 어머니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어머니 개인의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모성정체감은 어머니와 영아와의 개인적이면서도 특수한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모성정체감 획득과 긍정적인 모아 상호작용의 결과 형성되는 모아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과정이다.

모성정체감은 임신중에는 어머니가 될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상에 의해 결정이 되며, 산욕기에는 능숙하게 영아를 돌보는 이상적인 제삼자로부터 영아와 직접 관계하고 있는 자신에게 옮겨지고, 영아가 무엇을 바라는지 예상함에 따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이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확고해져 간다. 이에 따라 어머니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증진되며, 모아상호작용을 통한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다.(권미경, 1996 ; 이은숙, 1992 ; Carter-Jessop, 1981 ; Davis & Akridge, 1987 ; Muller,

1992a ; Sandelowski, 1994).

권미경(1996)은 애착과 모아상호작용에 관한 문헌 고찰한 결과 안정된 모아애착을 형성하기 위한 영향요인으로 어머니 측면에서는 아기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아기반응에 대한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 어머니 역할 획득, 모성정체감과 아기돌보기에 대한 자신감,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적절한 지지, 생활 스트레스와 불안의 감소를 제시하였고, 아기로인에서는 아기의 건강한 신체적 상태, 기질(temperament), 수유형태를 제시하였다. 고효정(1995), 문영숙(1998), 이은숙(1992), 이해경(1992)의 모성 역할획득에 관한 연구에서는 모성역할획득시의 역할진장과 모성정체감간의 역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임신과정동안 이루어지는 어머니됨의 바람직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 (1) 긍정적인 모성 정체성
- (2) 안정된 모아 애착형성
- (3)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 (4) 건강한 모성과 건강한 태아

7. 경험적 증거

경험적 증거는 개념의 속성이 실제현장에서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Walker & Avant, 1983). 문헌고찰을 통하여 어머니됨의 개념적 의미속성을 규명한 후 어머니됨을 경험한 7명의 초임부, 3명의 산욕부 및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및 노년기 여성 5명을 대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심층 면담을 하였다.

면담 결과 15명의 여성에게서 실제적으로 확인된 어머니됨 현상의 범주로는 임신을 확인한 후 어머니됨을 인식하고 어머니가 되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며, 초음파 검사나 태동으로 아기를 인식하며, 모성과 태아가 통한다는 일치감을 경험하며, 아기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아기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태교에 관심을 갖고 몸소 실천하며, 신체증상이나 불편감 경험에 대해 극복하려는 마음가짐과 실천행동을 하며,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반응이 임신동안 어머니가 되어가는 경험적 증거가 된다.

Ⅲ. 결 론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건강행위는 개별사회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가 특별히 반영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

으므로 임신, 분만 및 산육 관리와 관련된 전통적인 건강관리방법의 현대적 조명을 통한 대상자의 건강증진도모의 노력은 간호영역에서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장순복 등, 1996).

어머니됨의 과정은 실제로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예비 부모로서의 기능 상태는 산후의 기능 상태, 결혼생활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다(김혜원과 홍경자, 1996).

따라서 태교, 모성 전환, 모성 정체성, 모성 역할획득, 모아 애착, 모아 상호작용의 개념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머니됨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간호영역에서 사용자들간의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머니됨의 개념분석을 시도하였다.

Walker & Avant(1983)의 개념분석틀에 근거하여 추출된 어머니됨의 개념적 의미 속성은 (1) 자연성(naturalness), (2) 책임성(responsibility), (3) 애착성(attachment), (4) 준비성(readiness), (5) 제어성(controllability)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됨의 선행요인으로는 (1) 모성애, (2) 긍정적인 자존감, (3) 임신 수용, (4) 태아 인지가 되며, 어머니됨의 바람직한 결과로는 (1) 긍정적인 모성 정체성, (2) 안정된 모아 애착형성, (3)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4) 건강한 모성과 건강한 태아가 될 수 있다.

어머니됨의 경험적 증거로 실제로 임부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적 범주로는 (1) 임신 확인후 어머니됨 인식, (2)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 (3) 초음파 검사나 태동으로 아기 인식, (4) 모성과 태아가 통한다는 일치감 경험, (5) 아기에게 애정 표현, (6) 아기 건강에 대한 관심, (7) 태교에 대한 관심과 실천, (8) 신체증상이나 불편감 경험을 극복하려는 마음가짐과 실천, (9)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반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실무면에서는 간호현장에 있는 실무 간호사들을 포함한 건강 전문인들이 임부 및 태아의 건강 관리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머니됨을 준비하는 임부들에게 효율적인 임신적응과 긍정적인 의미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심리적·교육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며, 간호연구면에서는 한국적 사회문화에서의 어머니됨을 준비하는 임부들에게 긍정적인 모성 정체성, 안정된 모아 애착형성,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건강한 모성과 건강한 태아와 같은 어머니됨의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어머니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아 (1996). 고통의 개념분석과 개발. 간호학회지, 26(6), 290-303.
- 계몽사 편집부 (1996). 여성백과 호토피아. 계몽사.
- 고효정 (1994). 어머니 역할의 개념분석. 모자간호학회지, 4(1), 80-90.
- 고효정 (1995). 취업유무에 따른 초산모의 역할진장과 어머니로서의 정체감 형성 및 관계.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옥희 (1998). 권력부여에 대한 개념분석. 간호학회지, 28(3), 37-46.
- 구미옥, 양영희, 이은남, 박송자, 박영임, 서순림, 김성재, 김인자, 최은옥, 이동숙, 이인숙, 이은옥 (1997). 자기효능의 개념분석. 간호학논집, 11(1), 106-119.
- 권미경 (1996). 애착과 모아상호작용에 대한 문헌적 고찰. 관대논문집, 407-416.
- 김순이, 류철선 (1997). 임신부의 태교에 대한 태도유형 분석. 간호학회지, 27(4), 740-752.
- 김현옥 (1996). 한국인의 태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1996). 초임부의 모성정체성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홍경자 (1996). 임부의 모성정체성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간호학회지, 26(3), 531-543.
- 모국어교육연구회 (1996). 젊은 엄마, 아빠의 실천태교수첩. 한울림 출판사.
- 문영숙 (1998). 신생아 어머니의 역할진장과 모성정체감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63(1), 87-97.
- 박숙자, 손은영, 조명덕, 조은 편역 (1995). 가족과 성의 사회학. 사회비평사
- 박인규, 박영규 (1991). 한방의학백과 동의보감. 학력개발사.
- 방매륜 (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변영순, 장희정 (1992). 건강증진 개념분석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2(3), 362-372.
- 서병숙 (1993). 결혼과 가정. 학문사
- 신경림 (1994). 직관개념분석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4(2), 206-215.
- 심미정 (1994). 엄마와 함께하는 태아의 여행. 샘터.
- 양명숙 (1994).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 연구(II) : 일상가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1), 59-73.
- 유안진 (1992).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유안진, 신양재 (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 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3.
- 이경혜, 한영란, 배정미, 정금희 (1995). 여성건강에 대한 개념분석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222-233.
- 이경혜, 박영주, 변수자, 유은광, 이미라, 이영숙, 이해경, 정은순, 조옥순, 최의순, 한혜실 (1997). 여성건강간호학. 서울: 현문사.
- 이동민 (1989). 태중교육. 서울: 명문당.
- 이병숙 (1996). 돌봄의 개념분석. 간호학회지, 24(4), 616-622.
- 이영애 (1994). 강인성의 개념분석. 간호학회지, 24(4), 616-622.
- 이옥자 (1993). 간호이론개발을 위한 개념분석 : 사랑. 간호학회지, 23(3), 369-376.
- 이은숙 (1992). 산욕기초산모의 어머니 역할획득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2(1), 5-20.
- 이은희 (1995). 초산부부의 임신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 (1992).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할획득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승 (1982). 국어 대사전. 민중서림.
- 임동근 (1993). 바람직한 육아태교. 고려원
- 장순복, 박영주, 최연순, 정재원 (1996). 한국임부의 태교요인. 간호학회지, 26(2), 345-358.
- 정난주 (1994). 부부 태교 280일. 효성출판사.
- 조경숙, 최의순 (1995). 접촉에 대한 개념분석. 간호학회지, 25(4), 633-640.
- 조동숙 (1987). 출산부인의 태교실태와 건강전문인의 태교에 관한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 이정옥, 조주현 (1997).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주연, 이미라 (1996). 여성들의 임신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간호학회지, 26(1), 5-14.
- 주정일 (1993). 태교 : 출산의 지혜. 샘터.
- 최연순, 장순복, 조희숙, 최양자, 장춘자, 박영숙, 이남희 (1994). 모성간호학I. 서울: 수문사.

- 최연순, 김현옥 (1995). 임신부부의 태교 실태조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53-173.
- 한글학회 (1994).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Barrie Thorne, Marilyn Yalom 엮음 (1979)/권오주, 김선영, 노영주, 이승미, 이진숙 옮김 (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 아카데미
- Bigner, J. J., 이경우 역 (1985). 부모-자녀관계 부모 교육 입문. 서울: 창지사.
- Barclay, L., Everitt, L., Rogan, F., Schmied V., and Wyllie, A. (1997). Becoming a mother-an analysis of women's experience of early motherhoo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7, 719-728.
- Callen, V. J., & Gallois, C. (1983). Perception about having children : are daughters different from their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607-612.
- Carolyn, W. L., & Geri, L. W. (1989).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age, quickening, and physical symptoms of pregnancy to the development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Birth, 16(1), 13-17.
- Carter-Jessop, L. (1981). Promoting maternal attachment through prenatal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6x, 107-112.
- Chinn, P. L., & Kramer, M. K. (1995). Theory and nursing. 4th ed., Mosby year book, Inc.
- Curry, M. A. (1987). Maternal behavior of hospitalized pregnant women. Journal of Psychosomatics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7, 165-182.
- Davis, M. S., & Akridge, K. M. (1987). The effect of promoting intrauterine attachment in primiparas on postdelivery attachment.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16, 430-437.
- Fawcett, J. T. (1988). The Value of Children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riage and Family Review, 12, 12-34.
- Gordeuk, A. (1976). Motherhood and a less than perfect child : A literary review. Maternal Child Nursing Journal, 5, 57-68.
- Hoffman L. W., & Manis, J. D. (1979).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583-596.
- Imele, M. A. (1990). Third trimester concerns of expectant parents in transition to parenthood. Holistic Nursing, 4(3), 25-36.
- Kemp, V. H., & Page, C. (1987). Maternal self-esteem and prenatal attachment in high risk pregnancy. Maternal Child Nursing Journal, 16(3), 195-206.
- Le Masters (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352-355.
- Martin C. L., Dorothy L. F. (1979). Combating myth : a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zing the stress of motherhood. Advanced in Nursing Science, 1(4), 75-84.
- Muller, M. E. (1992a). Development of the prenatal attachment inventory.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5, 199-215.
- Muller, M. E. (1992b). A critical review of prenatal attachment research.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 An International Journal, 6 (1), 5-22.
- Rabin, P. (1965). Motivation for parenthood. Journal of Projective Techniques, 29, 405-411.
- Reeder, S. J., & Martin, R. R. (1987). Maternity Nursing. 16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 Rogan F., Schmied V., Barclay L., Everitt L., and Wyllie A. (1997). Becoming a mother-developing a new theory of early motherhoo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877-885.
- Rossi, A. S. (1968).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26-33.
- Rubin, R. (1961). Basic maternal behavior. Nursing Outlook, 9, 683-686.
- Rubin, R. (1967).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 2 Models and Referents. Nursing Research, 16, 342-346.
- Sandelowski, M. (1994). Separate, but less unequal : Fetal ultrasonography and the transformation of expectant motherhood/fatherhood. Gender & Society, 8, 230-245.
- Sandelowski, M., & Black B. P. (1994). The

temology of expectant parenthood.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6(6), 601-622.

Seccombe, K. (1991). 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children: Gender comparisons among child free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the Marriage and the Family, 53, 191-202.

Mercer, R. 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factors that impacts on the maternal role. Nursing Research, 30, 73-77.

Veevers, J. E. (1973). The social meaning of parenthood. Psychiatry, 36, 291-310.

Walker, L. O., & Avant, K. C. (1983).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Appleton-Century-Crofts.

Walker, L. O. (1992). Parent Infant Nursing Science: Paradigms, Phenomena, Methods. F. A. Davis Company, Philadelphia.

Webster's english to english dictionary (1976).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 Abstract -

Key concept : Motherhood, Concept analysis

The Concept Analysis of Motherhood

*Kim Young Hee**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 behavior related pregnancy and childbirth have reflected on the cultural belief and value in the society. The efforts for women's health promotion through the current illumination of the traditional health care are the prompting assignment to be in nursing. The process

of motherhood already progress before the motherhood actually. The functional state as the expectant mother can be the important predicting factor of the postpartum state, the quality of a married life.

Motherhood was analyzed by Walker and Avant's method to clarify the concept 'to be a mother' using the various concepts like Koreans' Taekyo, transition to motherhood, maternal identity, maternal role attainment, maternal fetal attachment, and maternal fetal interaction.

Upon the concept analysis, naturalness, responsibility, attachment, readiness, controllability were identified as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motherhood.

The antecedents of motherhood were consist of maternal affection, positive self esteem, pregnancy acceptance, fetus recognition and the consequences of motherhood were consist of positive maternal identity, maternal fetal attachment, confidence about the maternal role, the healthy mother and the healthy baby.

The empirical referents of motherhood were consists of recognition of motherhood, expectation about motherhood, fetal recognition with ultrasonography and fetal movement, experience of unification between mother and fetus, expression of affection to the fetus, concern about fetal health, concern and practice about Taekyo, adaptation behavior about physiological change and discomfort due to pregna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instruction program of motherhood including the defining attributes identified in this study.

* Doctoral Course at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Wonju Campus, Yonsei University.